

유형별 부채의 보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Determinants of the Household Use of Different Types of Debt

인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성 영 애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조교수 최 현 자

Dept. of Home Management, University of Incheon
Assistant Prof.: Sung, Young-Ae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Choe, Hyunja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 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the ownership of asset and the other types of debts on the use of a specific type of household debt. Household debts were categorized into six types according to borrowing sources: debts from banks, other financial institutes, employers, private sources, Gye, and retailers. The 1996 Korean Household Panel Study were analyzed using logistic model. It was found that socio-demographic factors influenced differently on the probabilities of debt holdings according to the types of debt. There were interrelationships among the ownerships of a specific type of debt and other types of debt and asset.

I. 서론

가계의 부채보유행동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가계는 먼저 부채를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차용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다음으로 어떤 수단을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

다. 전통적인 생애주기가설(Ando & Modigliani, 1963)은 첫 단계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가계가 차용행동을 하게되는 합리적 모형을 제시하여 주고 있으나 여기서는 가계에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부채가 완전 대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각기 다른 부채유형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재무적 필요성이나 재무목표, 대출원천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유형의 부채를 이용하기도 하며 이러한 신용시장에서의 공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 가능한 부채의 차이는 다른 경제적인 조건이 동일한 가계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경제적 복지수준을 갖게 한다. 저축수단에 따라 자산축적의 결과가 다르듯이 차용수단, 즉 부채유형에 따라 이자율이라든가 상환조건, 대출규모, 대출자적 등과 같은 특징이 다르며 따라서 부채의 비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다.

각각의 부채유형이 갖는 특징으로 인하여 특정 유형의 부채를 이용하거나 보유할 가능성은 가계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계의 부채보유나 규모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뿐 만 아니라 가계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다른 유형의 부채의 보유와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가계가 특정한 유형의 부채를 이용하는 것은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구조, 즉 자산 및 부채 포트폴리오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부채와 자산의 수요간에 상호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Watts & Tobin, 1960; Motley, 1970; Mishkin, 1976; Bryant, 1986; Choe & Johnson, 1992; Choe, 1992).

우리 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최근 들어 부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부채유형과는 관계없이 총체적인 부채의 보유여부나 규모에 관심을 갖는 연구가 대부분이며(성영애·양세정, 1995; 최현자, 1996; 문숙재·김순미·양정선, 1996), 부채를 유형화하여 관련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김시범(1993)과 문숙재 등(1996)이 부채를 금융기관부채와 사채로 나누어 관련요인을 살펴본 바 있으나, 부채유형을 세분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유형간에 나타나는 수요의 상호연관성을 검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채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각 유형의 부채보유와 관련된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영향력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부채유형별 보유여부는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둘째, 부채유형별 보유여부는 유형별 자산의 보유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셋째, 부채유형별 보유여부는 다른 유형의 부채보유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본 연구를 통해 유형별 자산의 영향과 더불어 각각의 부채유형이 다른 유형의 부채보유여부에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부채수단과 자산이 독립적, 대체적 아니면 보완적인 수단으로 이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부채보유 패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차용과 관련된 재무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부채유형과 특징

일반 가계나 소비자가 이용하는 부채를 분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현금을 직접 빌려쓰는 현금대출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가격을 바로 지불하지 않고 외상 구입하는 구매대출이 있다(이기춘 등, 1998). 현금대출과 구매대출의 경우는 대출원천, 대출규모나 빈도, 대출용도 등이 서로 다르며 이용으로 인한 영향력도 다르다¹⁾.

부채이용시 담보설정 여부에 따라서는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 담보부채와 소비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빌려쓰는 비담보부채 또는 신용부채로 나뉘어 진다. 담보부채의 경우는 담보능력이 있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공여자 측면에서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적어 통상적으로 부채비용이 신용부채에 비해 낮다. 신용부채의 경우는 신용의 입증수단

1) <http://cfc.pe.kr>, <http://user.chollian.net/~k640920/loan> 등 웹사이트 참고.

으로서 직업이나 교육수준 등과 같은 소비자 특성이 활용되기도 하며 최근 들어서는 각 금융기관들마다 자체적인 개인신용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점차적으로 신용부채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¹⁾.

미국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이용되었던 분류방식은 부채의 상환방식에 따라 할부부채와 비할부부채로 나눈 것이다(Lansing, Maynes & Kreinin, 1957; Watts & Tobin, 1960; Jensen & Reynolds, 1986 등). 할부부채란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을 지속적으로 상환하는 형태의 부채이며 비할부부채란 일시불 혹은 부정액을 부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부채를 의미한다. 또한 부채의 용도에 따라 주택금융(mortgage debt)과 주택금융을 제외한 비사업용 소비자금융(consumer debt)으로 나누기도 한다.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원천에 따라서, 부채를 제공하는 기관이 제도화되어 있는 공금융부채와 제도화되지 않는 곳으로부터 제공받는 사금융부채로 나누기도 한다(한국은행, 1992). 공금융부채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이 제도화된 금융기관을 통해 차용을 하는 것으로 주로 공정금리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며 대출조건도 비교적 명시되는 특징을 갖는다¹⁾. 이러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 외에 사적인 경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금융부채의 하나인 직장상을 통한 직장대출의 경우(김시범, 1993, 대우경제연구소, 1997) 고용인을 위한 복지제도(fringe benefit)의 일환이기 때문에 가계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기관이나 직장에서 차용한 부채를 이용하는 가계는 차용으로 인해 가계경제상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대출로 인한 이익을 더 볼 수 있는 수혜계층으로 인식되기도 한다(김중수·김영희·김진영, 1985). 반면 사금융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채의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회수위험부담이 높아 대체로 이자율이 매우 높게 설정되는 특징을 갖는다(이중희·허정수, 1993). 또 다른 형태의 사금융부채로 계를 들 수 있는데, 계는 주로 목돈을 마련하는 저축수단이나 친목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김시월, 1991), 이미 탄

계는 자금을 이미 획득하여 그 대가를 앞으로 지속하여 지불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부채의 성격을 갖는다.

이상과 같이 부채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나, 어떤 분류방식을 이용하는가는 연구목적이나 소비자가 처한 금융환경 등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금융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왔으며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문제가 되어왔기 때문에, 가계 또는 소비자복지에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부채를 공금융부채와 사금융부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한국은행, 1992; 문숙재 등, 1996).

2. 부채유형별 보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계 및 소비자부채와 관련되어 가장 활발히 연구의 초점이 되어온 주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용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이다. 총체적인 부채보유여부 및 규모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Sullivan & Worden, 1986; Marlowe & Godwin, 1988; Hira, 1990; 성영애·양세정, 1994; 최현자, 1996; 문숙재 등, 1996), 할부부채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Lansing, Maynes & Kreinin, 1957; Watts & Tobin, 1960; Jensen & Reynolds, 1986 등), 신용카드 사용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Canner & Czynak, 1985; Jensen & Reynolds, 1986; Lindley, Rudolph & Selby, 1989; 여정성, 1990 등), 주택금융보유나 규모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Bryant, 1986; Choe, 1992 등), 사금융 및 공금융 보유여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김시범, 1993; 문숙재 등, 1996) 등에서는 종속변수에 따라 영향력이나 방향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족수, 직업, 거주지역, 소득수준, 취업자수, 부채에 대한 태도 등이 차용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계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부채보유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영애·양세정, 1994; 문숙재 등, 1996; 심영, 1998). 그러나 자산과 부채간의 관계의 방향에 대한 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성영애·양세정(1994)은 금융자산보유액이 적을

수록 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증가하며 자가를 보유하는 경우 부채를 보유하는 가능성이 증가함을 보여줌으로써 가계의 자산과 차용과의 관계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문숙재 등(1996)은 가계의 부채유무는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자가보유자보다는 무주택자인 경우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 다른 일련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자산과 부채수요 간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채유형간에도 수요에 있어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Watts & Tobin(1960), Motley(1970), Mishkin(1976), Bryant(1986), Choe & Johnson(1992)과 Choe(1992)는 포트폴리오 맥락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수요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위의 연구들은 가계의 차용행동은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 따라 조정되며 가계가 특정 유형의 부채를 선택하거나 그 규모를 결정할 때 가계의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자산과 부채구조를 고려한다고 결론 짓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특정유형의 부채보유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뿐 만 아니라 보유한 자산이나 부채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가계를 대상으로 부채유형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부채유형에 대해 연구한 것은 거의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일부 자산변인이 미치는 영향에 연구를 제한하여 다양한 종류의 자산보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된 바는 없다. 또한 부채유형간의 부채보유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변수의 정의

다음 모형은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자산유형별 보유여부 및 다른 유형의 부채보유여부가 특정 유형의 부채보유여부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D_i = f [X_i, A_k, D_{j(j \neq i)}]$$

이때 D_i 는 각 유형별 부채보유여부이며 X_i 는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고 A_k 는 유형별 자산의 보유여부이며 $D_{j(j \neq i)}$ 는 다른 유형의 부채보유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부채유형은 대출원천 및 현금/구매대출여부에 따라 은행부채, 기타금융기관부채(보험회사와 같은 제2금융권 대출), 직장대출, 사채 쓴 돈, 이미 탄 계, 구매대출(할부나 외상 매입금)로 구분하였다. 은행부채나 기타금융기관부채는 공금융부채이자 현금대출의 성격을 갖는다. 사채 쓴 돈과 이미 탄 계는 사금융부채이자 현금대출의 성격을 갖는다. 구매대출은 일부는 사금융, 일부는 공금융부채의 성격을 갖는다. 이상과 같이 부채의 유형을 분류한 것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나라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분류방식이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자료의 특성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부채유형별 보유여부는 이분변수로 종속변수임과 동시에 다른 유형의 부채보유여부 대해서는 설명변수로 이용된다. 이는 부채유형 i 의 보유여부에 관한 각각의 분석모형에서 부채유형 i 의 보유여부와 자산의 보유여부를 외생변수로 가정하고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자산보유패턴을 밝히는 데 유사한 모형을 적용한 Xiao(1996)를 따른 것으로 일련의 회귀모형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분석상의 제한을 지니고 있으나 본 연구가 탐색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추후 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기고자 한다.

본 분석에 포함된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는 가구주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및 직업, 거주지역, 가족수, 소득원수, 가계소득이다. 이 중 가족수와 가계소득은 연속변수로 이용되었으며 가계소득의 경우 종속변수와와의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제곱항을 포함하였다. 자산과 부채보유여부와와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산은 크게 실물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하였으며 실물자산관련 변수로는 자가보유여부와 자가를 제외한 기타실물자산의 보유여부를 포함

하였다. 유동자산의 경우는 은행저축, 주식, 채권, 보험, 사채, 준 돈, 계탈 돈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보유여부를 가변수로 처리하여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즉 D_i 가 1인 경우,

$$D_i = \log(p/(1-p)) = \alpha_1 + \sum \beta_i X_i + \sum \gamma A_k + \sum \delta D_i (i \neq j) + \epsilon_i$$

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D_{im} = 0$ 이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1996년도 한국가구패널조사이다. 이 조사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4차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1996년도 자료는 4차 패널자료이다. 4차 자료의 표본은 조사원년인 1993년도에 다단계층화확률표본에 근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반가계에서 추출된 4,547 가계 중 4차 추적에 성공한 2,833가계이다(대우경제연구소, 1997).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2,642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SPSS Win.를 이용하여 도수분포표, 평균, 백분율 및 로짓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3. 표본가계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 가계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가구주 연령은 48세이며 35-44세가 32.9%로 가장 많았다. 여성가구주 가계는 전체의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58%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주를 이루며 가구당 평균 1.4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195만원으로 전체의 65.2%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23.9%는 자가 이외의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자산의 경우 전체가구의 69.5%가 은행을 이용해 보유하고 있으며 두 가구중 한가구는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형태의 금융자산은 보유비율이 낮았다.

<표 1> 표본가계의 일반적 특성

(N=2,642)

변 수	변 수 값	빈도(%)	변 수	변 수 값	빈도(%)
가구주 연령 (평균:47.89)	35세 미만	449(17.0)	가구주 직업	봉급생활자	1,007(38.1)
	35-44	868(32.9)		자영업자	677(25.6)
	45-54	471(17.8)		농림수산업자	333(12.6)
	55-64	479(18.1)		비정규직종사자	223(8.4)
	65세 이상	375(14.2)		미취업자	402(15.2)
가구주 성별	남성	2,376(89.9)	소득원수 (평균:1.41)	0인	133(5.0)
	여성	266(10.1)		1인	1,514(57.3)
가구주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679(25.7)		거주지역	2인 이상
	중등학교	415(15.7)	서울		664(25.1)
	고등학교	988(37.4)	5대도시		629(23.8)
	대학교 이상	546(20.7)	중소도시		803(30.4)
				군부지역	546(20.7)
평균가구원수(명)		3.75	월평균가계소득(원)		1,954,538
자가보유가구		1,723(65.2)	기타실물자산 보유가구		631(23.9)
은행자산 보유가구		1,837(69.5)	주식보유가구		199(7.5)
채권보유가구		61(2.3)	보험보유가구		1,283(48.6)
사채 준 돈 보유가구		165(6.2)	계탈돈 보유가구		304(11.5)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유형별 부채보유특성

〈표 2〉에서는 부채유형에 따라 보유비율, 보유규모와 보유부채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가계의 50.2%가 최소한 한 종류 이상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부채보유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미 탄 계와 같이 부채로 포함된 영역이 넓고 조사대상에 농촌지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부채를 한 종류만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은 32.6%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가계의 13.4%는 두 종류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세 종류 이상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도 4.2%를 차지하였다.

부채유형별 보유비율과 액수를 보면 은행부채를 보유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가계의 21%가 은행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부채의 규모는 1,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한 가계의 비율은 14.8%이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규모는 1,746만원이었다. 직장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은 3.6%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이는 전체가계 중 직장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가계가 봉급생활자(38.1%)로 제한되어 있기 때

문일 것이다. 직장대출을 이용하는 가계의 대출규모는 789만원 정도인 것을 나타냈다. 대표적인 사금융 부채인 사채를 보유하는 가계의 비율은 10.2%이며, 이들의 평균 부채규모는 1,484만원이다. 계를 가입하여 이미 타서 이용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은 4.2%로 앞으로 계속 불입해야 하는 액수는 3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부나 외상 매입금과 같은 구매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 비율은 18.7%로서 전체가계의 약 1/5정도가 구매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부채규모는 139만원이다.

2. 유형별 부채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3〉은 부채보유개수와는 상관없이 특정유형별 부채보유여부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유형별 자산 및 다른 유형의 부채보유여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로짓분석의 결과로서 부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은행부채 보유여부

먼저, 은행 이외의 다른 유형의 부채 보유여부와 은행부채 보유여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타금융기관의 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은행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표 2〉 유형별 부채보유비율, 보유액 및 보유부채수

		보유비율(N(%))	전체가계의 평균 부채보유액(원)	해당부채보유가계의 평균 부채보유액(원)
유형별 부채보유비율 및 보유액	전 체	1,325(50.2)	8,196,225	16,299,872
	은행부채	555(21.0)	3,389,565	16,135,549
	기타금융기관부채	392(14.8)	2,590,882	17,462,015
	직장대출	94(3.6)	277,944	7,893,011
	사채 쓴 돈	269(10.2)	1,511,355	14,843,866
	이미 탄 계	111(4.2)	165,148	3,930,811
	구매대출	494(18.7)	259,023	1,385,304
유형별 부채보유개수	0개	1,317(49.8)	0	평 균: 0.72개
	1개	861(32.6)	13,218,064	
	2개	354(13.4)	28,034,140	
	3개	94(3.6)	33,356,836	
	4개	16(.6)	67,283,073	

〈표 3〉 부채유형별 보유여부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수, 자산유형별 보유변수 및 기타 부채보유변수의 영향(로지분석)

변 수		은행부채 보유여부	기타금융기관부채 보유여부	직장대출 보유여부	사채쓴돈 보유여부	이미탄계 보유여부	구매대출 보유여부	
사 회 인 구 학 적 변 수	가구주 연령 (기준:65세 이상)	-34	.42	-.13	6.55	.33	.10	1.35***
		-35	.52*	.21	6.54	.40	.16	1.26***
		-45	.11	.35	6.14	.49	.11	.74*
		-55	.11	.31	5.33	.36	-.26	.66
	가구주 성별(기준:여자)	남자	.34	1.03**	.21	-.24	-.38	.45
	가구주 교육수준 (기준:대졸)	초등	-.69**	-.40	-.23	.25	-.70	-.08
		중등	-.54**	.18	-.48	-.11	-.23	5.03E-05
		고등	-.34**	-.30	-.09	.08	-.34	-.06
	거주지역(기준:서울)	5대도시	-.38*	.73**	.55	.13	-.13	.23
		중소도시	.17	1.10***	.85**	-.10	-.49	.06
		군부	-.04	1.88***	.25	-.09	-.45	-.03
	가족수(명)		.04	.22***	-.15	.21***	.10	.11*
가구주 직업 (기준:봉급생활자)	자영업자	.21	.75***	-2.57***	.64***	.28	-.00	
	농림수산업자	.52*	1.77***	-9.19	-.22	-.42	-.31	
	비정규직종사자	-.28	.4334	-9.66	.21	-.40	.14	
	미취업자	-.13	.75**	-8.74	.02	.33	-.01	
소득자수(기준:0명)	2명 이상	1.20*	1.49*	-3.04	.38	5.57	12.55	
	1명	1.02*	1.37*	-2.56	.27	5.36	12.45	
가계소득(원)	소득	3.83E-09	-3.1E-08	1.98E-06**	-1.6E-08	1.84E-08	1.03E-07**	
	소득제곱	-	-	-3.0E-13**	-	-	-	
자 산 유 형 별 보 유 변 수	자가보유(기준:미보유)		.85***	.44*	-.40	-.34*	-.19	.08
	기타실물자산보유(기준:미보유)		.08	.71***	-.48	-.07	-.10	.02
	은행저축보유(기준:미보유)		-.04	-.50***	.11	-.86***	-.28	.13
	주식보유(기준:미보유)		.17	-.26	.82**	-.36	-.48	.04
	채권보유(기준:미보유)		.58*	.30	.63	.07	-1.41	.78**
	보험보유(기준:미보유)		.14	.55***	.41	.05	.23**	.48**
	사채 준 돈 보유(기준:미보유)		-.29	-.03	-.11	-.74*	.98	.17
계탈 돈 보유(기준:미보유)		.12	.16	-.33	-.13	.12	.24	
부 채 유 형 별 보 유 변 수	은행부채보유(기준:미보유)		-	-1.71***	.35	.75***	.45	.46***
	기타금융기관부채보유(기준:미보유)		-1.83***	-	.92*	.55**	.43	.39*
	직장대출보유(기준:미보유)		.38	1.07**	-	.57	-.20	-.10
	사채 쓴 돈 보유(기준:미보유)		.72***	.54**	.70	-	1.06***	.64***
	이미 탄 계 보유(기준:미보유)		.48*	.55	-.18	1.06***	-	.63**
	판매금융보유(기준:미보유)		.47***	.48**	-.04	.64***	.61**	-
상 수		-3.58***	-7.26***	-9.21	-3.40***	-8.62	-16.86*	
-2log likelihood		2377.15	1577.27	578.00	1548.94	810.69	2230.53	
Goodness of fit		2682.06	2784.95	1760.40	2500.98	2421.78	2459.33	
Model Chi-square		328.76***	636.25***	233.41***	184.37***	109.84***	310.36***	

*p<.05 **p<.01 ***p<.001

은행부채와 기타금융기관부채는 같은 공급용 대출 원천으로서 대체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사채를 쓰고 있는 가계의 경우는 사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계보다 은행부채를 보유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나서 은행부채와 사채는 서로 보완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여 주었다. 특히 은행부채를 보유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사채로 보충하여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계를 탄 가게나 구매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가계의 경우도 은행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일단 부채를 보유하는 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다른 유형의 부채도 보유할 가능성이 더 큰 편이다.

자산유형별 보유여부도 은행부채보유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를 보유한 가계가 보유하지 않은 가계보다 은행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 주택보유여부가 은행부채 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가이외의 기타실물자산의 보유여부, 채권 보유여부를 제외한 유동자산 보유여부는 은행부채 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은행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조건으로 주택담보 설정이 요구되는 실정을 반영하며, 주택구매와 관련하여서 채권을 구입하는 가계가 많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은행에서 일반가계가 대출을 받는 일차목적이 주로 주택구입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행부채 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보유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년가계보다는 35-44세의 확대기 가계의 경우 은행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5-44세가 주택과 같은 내구재구입이 많이 일어나며 소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채의 필요성이 높은 시기임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은행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컸는데 이는 이들의 은행대출에 대한 접근용이성을 반영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가구주의 직업이 은행부채보유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구주가 봉급생활자인 경우보다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은행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더 높음을 보여주었으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비정규직종사자 및 미취업자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은행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일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지역거주자가 5대 도시 거주자보다 은행부채를 보유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도시나 군부거주자의 경우 서울과 은행부채보유여부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5대 도시 거주자의 경우 은행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가장 낮았다. 가게 내에 소득자수가 많을수록 은행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맞벌이 부부와 같이 소득자가 많은 가게의 경우 은행과의 거래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가게소득은 은행부채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성별도 은행부채 보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기타 금융기관부채 보유여부

은행을 제외하고 보험회사나 투신사, 증권사, 상호신용금고, 우체국, 협동조합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부채를 보유여부와 다른 부채유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은행부채를 보유한 경우는 기타금융기관의 부채를 보유할 확률은 낮아졌다. 즉, 은행부채를 이용한 경우는 기타금융기관부채는 이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 직장에서 대출을 받았는지의 여부나 사채 및 구매대출 보유여부는 기타금융기관 부채보유와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직장대출을 보유하는 경우,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구매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기타 금융기관의 부채를 보유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나서 이상의 부채유형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됨을 시사하였다.

자가와 기타 실물자산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기타금융기관부채의 보유가능성이 달라졌는데, 실물자산을 보유한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기타금융기관에서 부채를 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자산의 경우는 은행저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기타금융기관의 부채를 더 보유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타금융기관 중 대출원천으로서의 보험회사의 이용도가 높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가구주의 연령이나 교육수준, 가계소득은 기타금융기관 대출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보다 남성일 경우, 가족수가 적은 경우보다는 많은 경우 기타금융기관의 부채를 더 보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가계의 경우 기타금융기관의 부채를 이용할 확률이 더 높았는데, 군부, 중소도시, 5대도시순서로 보유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이외의 지역에서는 일반은행보다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기타 금융기관에의 접근이 더욱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가구주 직업에 따른 결과를 보면, 봉급생활자의 가계보다는 자영업자, 농림수산업자, 미취업자 가계의 경우 기타금융기관의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가계의 경우 보유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소득을 획득하는 가족원이 많을수록 기타 금융기관부채 보유확률도 높아졌다.

3) 직장대출 보유여부

다른 유형의 부채보유여부가 직장대출 보유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기타 금융기관의 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직장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할 확률이 더 높으나, 그 밖의 부채보유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 및 실물자산과 다른 부채의 보유여부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하지 않는 경우보다 직장대출을 보유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식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의 보유여부는 직장대출 보유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나, 성별, 교육수준, 가족수 및 소득원수에 따라서는 직장대출 보유여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났

다. 서울보다는 중소도시의 경우 직장대출을 이용하는 가계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서도 직장대출여부가 달라지고 있는데,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자보다는 직장대출을 이용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소득에 따른 직장대출보유 가능성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나 그 증가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가계의 직장대출에 대한 수요가 더 크다고 결론 짓기 보다는 신용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제약으로 인해 대출조건을 충족시키는 가계만이 직장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사채 쓴 돈 보유여부

다른 유형의 부채보유여부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장대출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부채를 보유한 경우 보유하지 않은 가계보다 사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행부채를 보유한 경우, 기타금융기관의 부채를 보유한 경우, 계를 이미 타서 이용한 경우, 구매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가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사채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능한 한 다른 경로의 부채를 우선 이용하고 나서 부족할 경우 사채를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산의 경우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가 보유한 가계보다 사채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자가를 보유한 경우 은행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담보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채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시사하여 준다. 유동자산 보유여부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은행저축을 보유한 경우보다는 보유하지 않은 경우 사채를 보유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은행저축이 없을 정도인 가계의 경우 사채를 이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사채가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극단적으로는 일불리식의 이자계산으로 인하여 연체로 인한 가계위험부담이 높은 수단이므로 할 때 매우 우려할 만한 결과라 하겠다²⁾. 한편 사채 준 돈을 보유한 경우보다 보유하지 않은

경우 사채를 더 많이 빌려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사채를 저축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채로 금전을 빌려쓰는 경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가계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중 가족수가 많을수록, 봉급생활자보다는 자영업에 종사할 경우 사회적 경로를 통하여 가계자금을 빌려쓰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가구주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및 거주지역 그리고 취업자수나 가계소득수준은 사채보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미 탄 계 보유여부

가계가 이미 탄 계를 보유할 확률은 사회인구학적인 변수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사채 준돈이나 사채 쓴 돈의 보유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채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쓰는 가계의 경우 사채를 이용하지 않는 가계보다 이미 탄 계를 보유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채와 계는 사금융이라는 공통점에 기인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구매대출 보유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매대출의 보유여부는 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태도를 반영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때 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계의 활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6) 구매대출 보유여부

구매대출 보유여부는 다른 유형의 부채보유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대출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보유하지 않은 경우보다 구매대출을 보유할 확률도 증가하였다.

자가보유나 기타실물자산의 보유여부에 따른 구매대출보유 가능성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동자산 중에서는 은행자산이나 주식, 사채 및 계를 보유한다고 구매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는데, 반면 채권이나 보험을 보유한 가계의 경우 구매대출을 보유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소비적 성향을 반영하는 구매대출의 이용여부는 지속적인 자금의 유입을 나타내주는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실물자산보다는 유동자산의 보유여부에 영향을 더 받고, 유동자산이지만 현금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채권이나 보험을 보유하는 가계의 경우 구매대출을 이용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이용하게 되는 구매대출의 보유여부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이 작을수록 구매대출을 보유할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신용카드나 할부제도의 이용이 젊은 계층에게 더욱 보편적인 지불수단이 되어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가족수가 많을수록 내구재 및 소비재에 대한 필요도가 증가하므로 구매대출을 더 보유하고 있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가구주의 성별이나 교육수준, 거주지역 및 직업, 소득자수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가계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구매대출을 보유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더불어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유형이 특정 유형의 부채보유여부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1996년도 한국가구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2,642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2) 사채이자율은 양극단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한국가구패널조사에 따르면 사채이자율이 0%인 경우도 20%나 되지만, 일반 금융기관수준인 월1%(연12%)인 경우는 11.52%에 불과하다. 연이자율로 계산하여 보면 24%에 이르게 되는 월이자율 2%인 경우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보다 높게 월 3%(연36%), 4%이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사채보유가구의 사채이자율(N=269)〉

월이자율	0%	1%	2%	3%	4%이상
N(%)	55(20.45)	31(11.52)	143(53.16)	25(9.29)	15(5.58)

첫째, 다른 유형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특정 유형의 부채보유가 달라지고 있다. 직장대출, 이미 단 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유형의 부채가 긴밀히 연결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중 은행부채와 기타 금융기관 부채는 (-)관계를 보임으로써 상호 대체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반면 나머지 유형의 부채간에는 관계가 유의미한 경우 모두 (+)관계임을 보여주어 상호보완적으로 이용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보유하지 않은 가계보다 또 다른 부채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큼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가계의 부채유형별 보유여부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연령의 경우 은행부채 보유여부와 구매대출 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기타 금융기관부채 보유여부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수준은 은행부채 보유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는 은행부채, 기타 금융기관부채 및 직장대출 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거주자와 비교하여 5대도시 거주자의 경우는 은행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이 적어지는데 반하여 기타 금융기관의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은 더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는 서울 거주자보다 기타 금융기관부채 보유가능성과 직장대출 보유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는 기타 금융기관부채와 사채 쓴 돈 보유여부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직업은 다른 변수와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여진다. 4가지 유형의 부채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봉급생활자와 비교하여 기타 금융 기관부채, 사채 쓴 돈을 보유할 가능성이 더 큰 편이나 직장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은 더 적다. 농림수산업자의 경우 봉급생활자와 비교하여 볼 때, 기타 금융기관 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더 높았다. 주부, 학생, 퇴직자, 실업자 등을 포함하는 미취업자의 경우는 봉급생활자에 비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다. 가계 내에 소득자 수가 많을수록 은

행부채 및 기타 금융기관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예상과 달리 가계소득은 직장대출과 구매대출의 보유여부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보유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가계가 어떤 유형의 부채를 보유하는가는 가계가 갖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수에 따라 달라지며 유형에 따라 관련되는 변수가 다르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가계의 특성이 다른 가계가 접근할 수 있는 부채수단은 다르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계가 어떤 종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가계의 부채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실물자산으로서 자가를 보유한 경우는 보유하지 않은 경우보다 은행부채와 기타 금융기관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가계는 자가보유자보다 사채를 이용하는 경향이 더 커진다. 자가를 제외한 기타실물자산은 기타 금융기관부채 보유여부와 관련이 있었다. 유동자산 중 은행저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은행저축을 보유한 가계보다 기타금융기관 부채와 사채 쓴 돈을 보유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과 채권의 경우는 각각 직장대출, 구매대출 보유여부와 관련이 있었다. 보험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의 경우는 보유하지 않은 가계에 비해 기타금융기관의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구매대출을 이용할 가능성도 증가하였다. 사채준 돈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사채를 덜 빌려 쓰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이미 단 계를 보유할 가능성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자산의 종류 중 자기 소유의 주택이 현금대출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유동자산과 부채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사금융대출의 경우 사금융저축과, 공금융대출의 경우는 공금융저축수단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자산과 부채, 부채유형간의 보유여부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보유패턴을 밝히고자 하는 탐색적인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방법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자산과 다른

유형의 부채보유를 외생변수로 취급하여 이로 인한 분석상의 오류가 존재함을 시인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측면에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계가 부채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부채를 이용하게 될 것이나 이에 대한 정보의 미흡으로 그 효과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포트폴리오구조 내에서의 부채수요의 조정 과정을 충분히 밝히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 참고문헌

- 1) 김시범(1993). 한·일간 가구속성별 저축·부채 구조 비교분석. 국민경제리뷰 11, 6-15.
- 2) 김시월(1991). 도시주부들의 계참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2), 155-167.
- 3) 김중수·김영희·김진영(1985). 도시가계의 주택 금융이용행태에 관한 분석. 한국개발연구 7(3), 58-84.
- 4) 대우경제연구소(1997). 대우패널 데이터 설명서.
- 5) 문숙재·김순미·양정선(1996). 가계의 부채보유 여부 및 부채액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57-169.
- 6) 성영애·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07-219.
- 7) 심영(1998). 가계의 저축과 차용의 상관관계 분석. 소비자학연구 9(1), 57-73.
- 8) 여정성(1990). 가계의 신용카드 선택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2), 72-83.
- 9) 이기춘·박명희·윤정혜·손상희·김경자·성영애(1998). 소비자재무설계론. 서울: 학현사.
- 10) 이중희·허정수(1993). 전세금의 제도금융화 방안. 주택금융 12.
- 11) 최현자(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59-73.
- 12) 한국은행(1992). 도시가계 저축시장조사.
- 13) Ando, A. & Modigliani, F. (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 14) Bryant, K.W.(1986). Asset and debt in a consumer portfolio.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1(1), 19-35.
- 15) Bryant, W.K. (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6) Canner, G.B. & Cynamk, A.W.(1985). Recent development in credit card holding and use pattern among U.S. families. Journal of Retail Banking VII(3), 63-74.
- 17) Choe, H. & Johnson, D.P.(1992). The demand for consumer installment credit: Stock adjustment model. Proceedings of the 38th Annual Conference of American Council of Consumer Interest, 155-162. Columbia, Missouri: University of Missouri.
- 18) Choe, H.(1992). An analysis of consumer demand for credit in a portfolio context.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 19) Hira, T.K.(1990). Changes in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debt among Scottish families, 1984-1987. Journal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s 14, 165-175.
- 20) Jensen, H.H. & Reynolds, S.W.(1986). Consumer credit use and age: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retirement. Proceedings of the 32nd Annual Conference of American Council of Consumer Interest, 261-266.
- 21) Lansing, J.B., Maynes, E.S. & Kreinin, M.(1957).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se of consumer credit. Consumer Installment Credit (1), Washington, DC: Us Board of Governors, 487-520.
- 22) Lindley, J.T., Rudolph, P. & Selby, E.B.Jr.(1989). Credit card possession and use: Changes over time.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41, 127-142.
- 23) Marlowe, J. & Godwin, D.(1988). The relationship of income and human capital to debt/asset ratio

- of farm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1), 95-109.
- 24) Mishkin, F.S.(1976). Household liabilities and the generalized stock-adjustment model.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3, 481-486.
- 25) Motley, B.(1970). Household demand for assets: A model of short-run adjustmen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2(3), 236-241.
- 26) Prather, C.G. & Hoyer, J.H.(1996). Profiling the consumer debt portfolio of American households: Differences by income. Consumer Interests Annual 42, 149-154.
- 27) Sullivan, C. & Worden, D.D.(1986).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consumer debt use. Credit Research Center, Purdue University Working Paper No.52.
- 28) Watts, H.W. & Tobin, J.(1960). Consumer expenditures and the capital account.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Consumption and Saving 2. Philadelphia: Wharton School of Finance and Commer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 29) Xiao, J.J(1995). Patterns of household financial asset ownership.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99-106.